

특새 체조 · 새벽 공감 한 줄 · 특별한 새벽 간식

함께 웃고, 함께 나눈 새벽

특새 체조

MIB(Morning in Blessing)가 떴다!

이른 새벽, 아직 잠이 덜 깬 성도들을 단번에 깨운 주인공은 바로 MIB(Morning in Blessing) 요원들이었습니다.



김기도 목사 · 1교구

Q1. 어떤 마음으로 체조를 준비하셨나요?

A1. 처음 특새 체조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너무 잘하려는 마음보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즐겁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른 새벽부터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시는 성도님들께 작은 웃음과 즐거움, 그리고 활기찬 에너지를 전해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Q2. 성도님들과 함께 체조를 할 때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A2.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특새 체조를 기대하고 즐거워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울동을 따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새에 체조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으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특새 체조가 단순히 몸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공감 한 줄

나의 특새 한 줄 결산

이번 특새의 기억을 짧은 한마디로 나눠 주세요.

“알람은 몇 개 맞추셨나요?”

[안효진 순장] “남편 것 1개, 제 것 1개 맞추고요, 반주하는 날 3개요!”

“가족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은?”

[박하은, 코키]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엄마랑 쌍둥이 자매를 깨워서 왔어요.”

“이번 특새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방연주, 1청년] “은혜 충만해!”

[김서정, 1청년] “너무 좋았다!”

[채 룩, 1청년] “주기도문 굿!”

[이동희, 2청년] “행복합니다!”



장성경 목사 · 청년부

Q1. 어떤 마음으로 체조를 준비하셨나요?

A1. 사실 처음에는 당혹스럽기도 하고 조금 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이 잠깐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웃음이 지친 몸과 마음을 깨우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선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Q2. 성도님들과 함께 체조를 할 때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A2. 성도님들이 함께 웃고 즐겁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새벽, 함께 웃고 몸을 움직이는 소소한 순간마저 참 귀하게 느껴졌고 웃음으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따뜻한 시간이어서 참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으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따뜻한 시간”

특별한 새벽 간식

맛집으로 소문난 ‘특새 마켓’

특새 기간,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새 마켓’입니다. 이른 아침 출출한 속을 달래 주는 따뜻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출근길과 등굣길을 서두르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준비팀의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명아 순장, 06여

Q. 김밥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김밥을 고르실 때 특별한 기준이 있으셨나요?

A. 새벽마다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고, 김밥으로 든든히 배를 채우셔서 일상에서도 힘을 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김밥을 주문해 픽업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품질과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황OO 집사, 타교인

“샌드위치를 만들며 드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건강하게 해 주심과 평안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전해 드리고 오자마자 유튜브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마음껏 울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했던 토요 아침 간식

한 주간 특새의 은혜를 누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 간식인 떡볶이, 어묵, 음료, 샌드위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의 초대장

제2호

사림의교회 · 2026년 10월 25일 일요일

특별새벽부흥회 10.19-24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과 기도 돌아보기

함께 부른 우리 아버지

함께 걸은 새벽을 돌아보며, 주기도문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0.21 수요일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상의 방식이 더 빠르고 화려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지금 내 삶을 진짜 다스리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주기도문의 중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마음과 가정, 일터에 온전히 임하고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압이나 억압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임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보좌에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라질 세상의 자랑이나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일상의 자리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삶을 택할 때, 비로소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완벽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열망하고 계십니까?”	10.22 목요일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통 앞에서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스스로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유익이나 개인적인 계획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내 뜻을 내어맡기는 순종입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듯, 우리의 신앙 역시 생각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 맡기고 따라 걸어가 보는 선택들을 하나씩 해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과 꿈, 그리고 소망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해 봅시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삶을 선택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맞추고 있습니까?”
---	---

10.23 금요일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일의 염려와 탐욕을 내려놓고, ‘오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양식과 결실은 내 능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일의 불확실성에 갇혀 탐욕을 부리기보다, 오늘 내 손에 쥐여 주신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일상의 순간들이 은혜로 바뀝니다. 주님은 ‘나에게’가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나 혼자 쌓아 두고 배부른 삶이 아니라,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웃과 기꺼이 나누어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 설 때 주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비로소 증명됩니다. 육신의 빵만으로는 결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삶을 채워 갑시다. “당신의 삶은 내일의 염려와 쌓아 두려는 탐욕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10.24 토요일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기도는 보상을 바라는 거래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일만 달란트의 죄를 갚없이 탕감받은 자가 고백하는 은혜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의 무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일만 달란트’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주님의 피 값을 기억할 때, 타인을 품는 참된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용서받은 자녀의 마땅한 삶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공해를 마음에 채울 때 원망과 미움에 갇혀 있던 내 영혼도 자유와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용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주님의 공해를 힘입어 반복하는 순종의 연습입니다. 상처가 불췌 울라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고백하며 끊임없이 용서의 발걸음을 이어갑시다. 십자가의 용서가 흘러갈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직도 이웃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흘러넘친 하나님의 탕감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	--

기도 십일조 · 주기도문 필사 ·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손끝에, 마음에 남은 기도

CHALLENGE 01

내 기도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 십일조 · 정용란 순장, 06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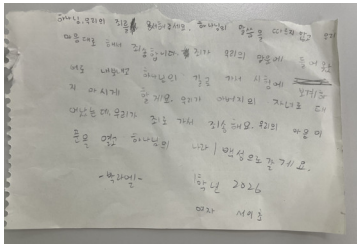
저희는 각자 하루 25분씩,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단톡방에 기도 이모티콘을 올려 서로 나누는데, 모두가 자신의 기도 분량을 성실히 채워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다락방 식구들을 향한 애정이 훨씬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우리 다락방 식구들이기에, 그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날마다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 기도하며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선물을 받는 기쁨이 컸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건네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OO 어린이, 코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어도 내보내고 하나님의 길로 가서 시험에 보게 하지 마시게 할게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죄로 가서 죄송해요. 우리의 마음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갈게요.”



동판 수령 안내

새벽의 기억 동판에 담아 간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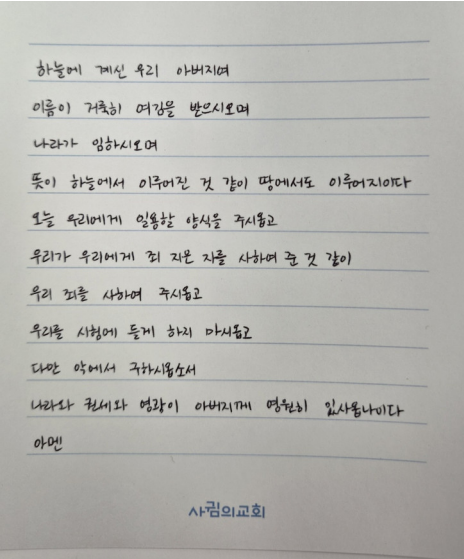


특새에 전일 참석하신 분들은 기념 동판을 간직하시고 특새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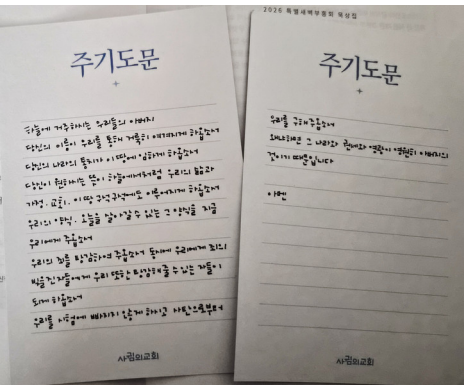
CHALLENGE 02

손끝에 남은 주기도문

주기도문 필사



김보겸, 2청년



안효진 · 은혜 계시판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번 특새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 주신 대로, 예전보다는 더 깊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께 나아갈게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선물



줄린 눈을 비비며 매일 새벽을 깨운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었습니다.

부서 예배에서 꼭 받아주세요! (코키 부서에서 는 히든 상품이!)

CHALLENGE 03

하늘 아버지, 제 마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이OO, 은혜 계시판

“주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제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주 작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한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며, 제게 선물로 주신 저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오늘, 저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김OO, 은혜 계시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초대장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7행시로 답장드립니다.”

특: 특별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며

별: 별이 충충 박힌 서울의 하늘을 보게 하시고

새: 새로운 말씀에 귀를 열어 주셔서

벽: 벽처럼 단단하던 자아가 무너지고

부: 부어 주시는 은혜에 폭 잠기게 하시니

흥: 흥분된 마음을 가다듬고

회: 회개와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OO, 은혜 계시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특별한, 새벽과 기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늘 곁에 두고 만지작대던 익숙한 상자인데, 열어 보니 귀한 보석이 가득한 보석함이었습니다.

기도를 간절하게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특새 기간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성도에게 결핍은 낙심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용사’라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주는 직함 같았습니다. 저의 신분은 이제 기도의 용사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신앙의 연차를 따지지 않고 정확하게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부여임을 봅니다.

성도의 고난을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대신 아파 드릴 순 없지만 기도로 평안과 치유의 성령을 간구하였습니다.

은혜의 새벽을 만든 사목의교회 공동체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이 배고픈 이를 위해 기꺼이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대별 성도 인터뷰 ·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특선

세대를 이어준 특별한 새벽

GENERATIONS / 세대

최별, 국제라(부부1), 최시은(코비)



Q. 아이와 함께한 이번 특새 어떠셨나요?

A.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마음은 늘 있었는데, 이번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최별)

“평소에는 아기를 돌보느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집중해서 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오늘은 남편이 배려해 준 덕분에 함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 참 좋았어요. 무엇보다 습관처럼 드리던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깊이 묵상해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감사하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국제라)

유지혜(09여), 한은탁(코키), 한민탁(코키)



Q. 아이와 함께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은 무엇인가요?

A.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이들이 “내일도 꼭 새벽기도에 갈 거야!” 하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다시 새벽을 깨울 힘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이번처럼 믿음의 동역자로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경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서준 · 코딩

학교에서도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요

Q. 학교생활 속에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나요?

A.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NTERVIEW / 다음 세대에게

이희길 집사 · 2교구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실하게

Q.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고 싶은 기도의 경험이 나 격려는 무엇인가요?

A. 요즘 우리는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제가 바랐던 것보다, 그리고 서운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크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계산이나 방법에 기대기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삶을 통해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특선 코키 어린이부

작은 목소리에 담긴 큰 고백



유은 · 코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Q1. 특송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였나요?

A1. 사실 별다른 생각은 안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니 떨리는 마음이 컸지만, 기쁨으로 찬양을 잘 준비한 것 같아요.

Q2. 특송하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A2. 특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입으로 찬양하며 표현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Q3. 이번 특새에서 마음에 남은 주기도문 한 구절은 무엇인가요?

A3.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금요일 특선 주차부와 안내부

맛이하던 손길 찬양의 자리로



이성천 순장, 04남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Q1. 어떤 마음으로 특새를 준비하셨나요?

A1. 새벽을 깨우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초대장은 무엇일까 기대하고, 저는 무엇을 결단할지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특새 기간에는 안내와 주차 봉사로 섬깁니다. 이 섬김을 통해 ‘우리의 의’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Q2. 이번 특새를 준비하며 특별히 품고 기도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비전과 미래, 그리고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도 선생님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라 도움을 주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아이들이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토요일 특선 · 코딩 청소년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주님께



정원율, 코딩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Q. 친구들과 준비하고 있는 특송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나요?

A.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Q. 특새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A. 새 친구 초청 잔치를 기다리며 한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